2018100936 박미란

제가 조사한 리눅스 배포판의 첫번째는 우분투(Ubuntu)입니다. 우분투는 GNU/Linux를 기반으로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데비안우분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놈 데스크톱 환경기반의 그래픽 셀인 유니티를 사용하는데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 비해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용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분투의 단점은 LTS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한 6개월마다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하고 Unity의 경우 호불호가 갈리는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트os(centOS)입니다. 센트os는 레드헷 계열입니다. 센트os의 장점은 강의에서 배웠듯이 RHEL의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HEL과 OS버전, Kernel버전, 패키지 구성이 똑같고 바이너리가 100%로 호환됩니다. 단점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문제 발생시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아닌 커뮤니티를 통해 지원이 되므로 패치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센트os의 특징은 첫째 안전성을 중시입니다. 둘째는 장기간 지원합니다. 셋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버용 리눅스라는점입니다. 세번째는 리눅스 민트입니다. 리눅스 민트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위한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우분투와 데비안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 구성은 전체적으로 윈도우와 많이 닮아 있고 리눅스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눅스 민트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기본으로 쓰이는 것은 시나몬과 마테가 있습니다. 시나몬은 그놈3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마테는 그놈2에서 가라져 나와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배포판을 조사하면서 센트 OS말고도 다른 리눅스 배포판을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